

이주여성들에 다양한 일자리를

▲레티란홀 결혼이주여성

베트남에서 한국에 사집온 지 8년되는 결혼이주여성이다. 올해 대한민국 국적도 얻었고 대통령선거도 했다. 현재로선 이주여성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 한국말은 서툴지만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또 부모님에도 형제, 자매들을 초청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아무쪼록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주여성들의 소망을 들어주셨으면 한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돼 달라

▲박태후 문인화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있던가? 총리 내정부터 대선 공약 후퇴 까지 아쉬움을 넘어 매끄럽지 못한 결정 방식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온 후의 마음이 달라 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의 행보도 호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친다. 소내배들은 그랬다. 전 정권도 그랬다. 임기 동안, 또 임기를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까지 통치자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볼 것이다. 부디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亞문화중심도시 성공적 완성을

▲조진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시인의 입에 재갈을 물린 권력자는 불행한 종말을 맞았음을 동서고금은 전하고 있다. 시인의 입을 자유롭게 하시라. 그래서 문화예술을 창궐케 하시라. 문화예술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굴 새로운 문화생산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며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 삶의 질은 복지제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에서 평가된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은 박근혜 정부의 일이다. 문화광주를 대한민국의 품격높은 브랜드 가치로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광주의 믿음을 얻는 일은 며칠 있지 않다.

젊은 작가들에 재정적 지원을

▲이주한 사진작가

문화예술 종에서도 사진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했다. 최근 배병우 작가 등 국내 많은 사진작가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한국 사진예술을 알리고 있다. 앞으로 이런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젊은 작가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아르페 예술강사 프로그램'이 있다. 어려운 작가들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학생들에게는 문화적 소양을 길러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문화예술인들의 사기 높여달라

▲김유정 다문화M오케스트라 단장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와도 정착 설 무대는 거의 없는 등 예술인들의 여건이 너무 취약하다. 문화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1~2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다문화M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지원책들이 다소 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들이 수립되면 좋겠다.

국민행복시대… 산적한 과제에 ‘朴心은 근심’

정부조직개편·청문회 등 난망…‘이명박 내각’과 동행

인사편중·경제민주화 후퇴…지지도 50% 밑으로 ‘뚝’

‘박근혜 정부’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현경사상 첫 여성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인 발길음을 뗄 것이다. 하지만 그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고 정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미와 과제=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출산과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상생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국민행복시대’의 선언이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쳐한 안팎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안으로는 저성장과 일자리부족, 양극화, 이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하면서 전방위적인 사회갈등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한반도 안보위기도 박 당선인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외부 요인이다.

새 정부에 부여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국민대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인사와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대량평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하지만, 조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서부터 이 같은 의지가 투영되지 않았다는 게 우려스런 부분이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같은 영남 인맥인데다 같은 대학 출신이어서 비판이 대상이 됐다. 반면, 호남인사들은 또다시 소외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개 정국’ 4·10월 재보선 분수령=새 정부가 25일 출범하나 정국은 역대 어느 정권 출범 때보다 흐미하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이고, 정부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하게 됐다.

또 인사편중과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논란 등의 여파로 박 당선인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급기야 50% 밑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만한 뾰족한 해법이 없

생활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추는 것 이라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율 확충,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장에 방점을 둔 나머지 대선 최대공약인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기조연금과 4대 종종 질환 등 핵심 복지공약 일부가 후퇴한 것도 박 당선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새 정부에 부여된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국민대통합’이다. 사회통합은 인사와 예산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대량평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하지만, 조각과 청와대 비서진 인사에서부터 이 같은 의지가 투영되지 않았다는 게 우려스런 부분이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같은 영남 인맥인데다 같은 대학 출신이어서 비판이 대상이 됐다. 반면, 호남인사들은 또다시 소외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안개 정국’ 4·10월 재보선 분수령=새 정부가 25일 출범하나 정국은 역대 어느 정권 출범 때보다 흐미하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이고, 정부원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명박 내각’으로 출발하게 됐다.

또 인사편중과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 논란 등의 여파로 박 당선인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급기야 50% 밑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해도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만한 뾰족한 해법이 없



의장대 취임식 연습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본관 앞 취임식장에서 열린

예행연습에서 의장대가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는 데 있다.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3자가 대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정국 경색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 등 핵심 정침을 타결하더라도 4월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정국 주도권 다툼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등 4월 재보선의 판이 전국 단위로 커진데다

벌써 야당에선 정권 초반 심판의 성격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선거 결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월 재보선에 자·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안철수 별’(發) 정계개편의 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양학선 등 광주·전남 취임식 초청자들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영광”

“대통령 취임을 알리는 타종식에 이어 취임식까지 참석하게 돼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25일 0시를 기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공식임기 시작을 알리는 타종행사에 타종자로 참석하는 광주출신 체조영웅 양학선 선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양 선수는 “저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성적도 좋은 운동선수가 많은데도 스포츠 대표로 초청돼 영광”이라면서 “대통령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체조기술을 개발해 2015년 고향 광주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양 선수는 이날 오전에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광주·전남지역 소외계층과 낙도주민, 다문화 가족 등과 함께 특별초청 대상자로 참석한다.

광주에서 다문화 가족 대표로 참석하는 베트남 출신 렌티란홍(여·28)과 박영수(36)씨 부부도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게 돼 너무 영광스럽다”며 “혹시라도 대통령에게 견의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주여성의 인권향상과 제도 개선 등을 견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한국으로 사집온 이주 여성의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면서 “현재 한국으로 초청될 수 있는 대상자가 부모로 한정돼 있는데 형제, 자매도 초청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한다”며 소박한 바람을 전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

하다 특별 초청됐지만, 이름공개를 한 사교 거부한 김모씨(여·43)는 “복지확대도 좋지만,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부 지원을 꼭 받아야 할 소외 계층을 집중지원하는 정책을 견의한다”며 “생활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서류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돼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는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도 숨어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의사가족인 이병주씨, 자원봉사자 최희규씨, 보육원생 3명, 일용근로자, 집배원 등이 취임식에 초대됐다. 또, ‘농도’의 특성상 능어인도 다수가 초청됐다.

전남 어업인 대표로 특별 초청된 송종근(고흥), 손만호(해남), 김용관(강진)씨 등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만큼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침체한 어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주·전남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 각각 77명과 89명 등 166명이 초청돼 참석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1954-2013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e only think cars

쌍용자동차

유행을 넘어 시간의 깊이를 탄다.
시간을 이겨온 명차 체어맨 W

대한민국CEO CHAIRMAN 4TRONIC All Wheel Drive System

CHAIRMAN FULL WARRANTY

체어맨 품질보증서비스
국내 최고수준 5년/12만km (일반 차체+엔진구동)

품격있는 VIP를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 주요혜택 : VIP CARD 발급 및 맞춤형 스페셜 비우처 제공(골프장 4인 그린피, 특급호텔, 종합 건강검진 뷰티케어 무료 이용권 및 골프용품 구매권 증 택!)

* 추가혜택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구입문의 → 광주권 광주중앙 529-0003 | 서광주 383-3434 | 광주광산 952-3330 | 북광주(첨단) 971-0990 | 광주풍암 655-4001 | 동광주 515-1900
전남권 순천중앙 723-7100 | 순 천 745-3666 | 신 여 수 654-5522 | 목포중앙 277-8000

● 2013년형 체어맨 W 특별혜택 (택1)		● 2013년형 체어맨 H 하만카돈 에디션 특별혜택 (택2)	
일시불 및 정상할부	특별리스 프로그램	일시불 및 정상할부	가격단위 : 원
귀향비 200만원지원	1년 반값리스 (리스료 50% 면제)	선수율 20%, 1.3% 할부 / 36개월	CW600 ₩55,640,000~₩62,010,000 CW700 ₩65,960,000~₩89,430,000 CM600 4Tronic ₩60,380,000~₩66,850,000 CW700 4Tronic ₩70,160,000~₩77,920,000 V8 5000 ₩89,630,000~₩103,420,000
※ 중고차 경매시스템 이용 시 50만원 추가 지원		선수율 10%, 최대 72개월 / 3.9% 저리할부	
귀향비 100만원지원	500S ₩35,870,000~₩45,800,000 600S ₩45,950,000~₩47,730,000		
※ 중고차 경매시스템 이용 시 30만원 추가 지원			
체어맨 W,H 2013 로열티 프로그램			
당사 차량 보유 또는 당사 차량 출고경험 고객 추가지원 2대째 50만원, 3대째 70만원, 4대 이상 100만원			
* 단, 체어맨 구매고객이 체어맨 재구매시 120만원			
체어맨 W,H 2013 고객사랑 이벤트			
별따기족, 출입생가족, 공무원, 교사 추가 지원 20만원			